

### 가상화폐 거래소, 하루 수수료만 35.5억 '투자 광풍'

# 거래대금 코스닥 앞질러... 접속폭주땀 전산마비 우려

(일 평균)

업비트 하루 거래대금 7조 달해  
수수료 정책 마땅한 기준 없어

사이트 마비·해킹 공격 등에 노출  
20일 신규 허용땀 접속 과다 위험



8일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블록스를 찾은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서윤 인턴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닥시장을 앞지르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거래소는 지난해 이익이 중대형 증권사를 앞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정책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거래소 파산 혹은 해킹에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일 가상화폐 전문거래업체 코인에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248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이는 세계 평균 가격인 1657만원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다. 그만큼 국내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방증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하루 거래대금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3조6900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이미 대형 증권사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4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빗썸을 운영 중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른 수치다. 빗썸은 올해(2018년) 영업이익은 32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36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국내 초대형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 ◆수수료 비율은 '옛장수 마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섭게 몸집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의 수수료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매 수수료는 최대 0.15%에 달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다. 즉, 1000만원이 거래되면 거래소는 1만5000원 씩 총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또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업비트의

하루 수수료수익만 35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소 수수료 정책 상품권이 투자자의 단기 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은 금액대별로 다양한 수수료 상품권을 내놨다. 한 예로 37만5000원짜리 수수료 상품권을 구매하면 5억원 내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수수료보다 50% 저렴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 달이라는 상품권의 사용기한이다. 즉, 한 달 내 5억원어치의 매매 거래를 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지난 12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출금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하는 일이 있었다. 거래소 측은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송금이 지연되거나 미승인되는 사례가 늘어 부득이하게 출금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특성상 거래가

많아질수록 검증해야하는 거래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태위태한 거래 시스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거세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가 마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새로 오픈한 거래소 코미드는 첫 날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마비됐다.

이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을 받아 파산했다. 그리고 빗썸, 업비트 역시 거래량이 폭증하자 거래가 마비되거나, 시세반영이 지연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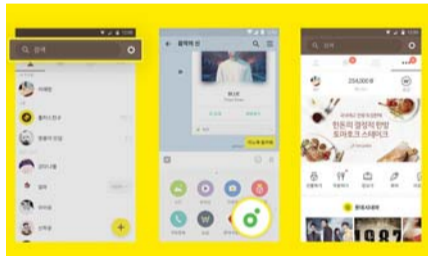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은 과열되는데 거래소 시스템이 미비한 것 같아 우려된다"며 "오는 20일 신규계좌 허용이 시작되면 이들 거래소가 접속량과 거래량을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민방위 통지서·지방세 내역 등 확인

# AI 만난 '카톡' 거듭 진화 소비자 생활에 들어온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상반기 '언어인식' 챗봇 서비스



지난 3일 업데이트 한 카카오톡. /카카오

# 대학생 이지연(24)씨는 지인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고민이 깊다. 거리가 멀어 평소에 잘 만나지 않아 생일에 뭘 챙겨줄지부터 따로 선물을 전해줄 시간을 빼는 것도 일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이러한 고민을 카카오톡(카톡)으로 해결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탭에 들어가면, 생일, 생애선물, 특별한선물 등 테마별로 지인 '맞춤형' 선물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접 만나서 주지 않고도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달한 뒤 수신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특을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내 본인인증 및 전자문서 서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 취급 대상이 정부·공공기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어 인식이 가능한 대화형 채팅 로봇(챗봇) 서비스도 상반기에 내부 서비스 위주로 출시되고, 향후 씨드파티까지 오픈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반기 중 내부에서 먼저 CBT 개념으로 챗봇 서비스를 선보이고 상반기 말에 외부 사업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주문하기'에서 챗봇이 활용되면, "피자 추천해줘" "메뉴 보여줘" 등의 문자 대화를 통해 카톡으로 메뉴를 보고 추천받을 수 있다.

카톡에서 챗봇이 상용화되면 카카오톡의 AI 스피커 '미니'에도 음성형, 문자형 투 트랙으로 도입될 수 있다.

임지훈 카카오톡 대표는 자사 블로그 서비스인 '브런치'를 통해 "비서 같은 카카오톡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CLFA

"벌어도 벌어도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은행 대출이 힘드신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시나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생계형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꿈을 대부금융에서 찾아드립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TEL 02) 3487-5800 www.clfa.or.kr